

배포일시	2021년 8월 20일
보도일시	즉시

“탄소중립 선도기업, 전환과정 지원할 것”, 민주연구원-기업경제연구소 간담회 결과

- 민주연구원, SK경영경제연구소와 제1차 정책 간담회 개최
 - “탄소중립 이행 여부가 기업 생존 · 경쟁력과 직결, 우리 사회 상식으로 자리 잡아”
 - “기후위기를 ‘위기’가 아닌 ‘기회’로 보고 도전하는 혁신기업만이 살아남을 것”
 - “우리 기업들은 다종의 위기 속에서도 역동적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중”
 - “SK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ESG 경영을 강조해온 점 인상 깊어”
 - “당은 새로운 혁신의 길에 도전하는 기업을 규제하지 않을 것”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노웅래)은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업 경제연구소 릴레이 정책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SK경영경제연구소(소장 염용섭)를 방문하였다.
-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간담회 개최 후 브리핑을 통해, “글로벌 시장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역동적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중”이며, “SK는 오래 전부터 글로벌 투자자들 요구사항을 고려한 ESG 경영을 강조” 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, “오늘 간담회를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은 이미 성과로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”고 간담회 소감을 밝혔다.
- 노웅래 원장은 “기후위기를 ‘위기’가 아닌 ‘기회’로 보고 도전하는 혁신기업만이 살아남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”할 수 있으며, “탄소중립 선도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경제의 미래지도가 될 것”이라는 점에서, “민주당과 차기 정부는 새로운 혁신의 길에 도전하는 기업을 규제하지 않을 것”임을 강조했다.
- 또한, 노웅래 원장은 “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, RE100, 탄소중립 과정에서 겪는 부담에 대해 가감 없이 청취”했으며, “탈탄소 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밀히 지원할

것” 입을 강조하였다. 아울러, “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정책과 대선공약에 포함” 하고, “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, 민주당은 더욱 분발할 것” 입을 강조하였다.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한국경제가 미래 전략산업의 주도권을 발휘하기 위한 정책 및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, 기업의 경제연구소들을 차례로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, 반도체, 연료전지 및 배터리, 바이오,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등 미래-전략산업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듣기 위한 청책 간담회를 진행한다.

※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, 청책 간담회 현장의 기자 출입은 제한될 예정이오니,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향후 <청책 간담회> 일정

- 8.25.(수) 15:00 LG경제연구원
- 8.27.(금) 15:30 삼성경제연구소
- 8.30.(월) 14:00 HMG경영연구원(현대차그룹)

[붙임] ‘SK경영경제연구소-민주연구원 청책 간담회’ 행사 사진

[붙임] 'SK경영경제연구소-민주연구원 정책 간담회' 행사 사진



▶ SK경영경제연구소 관계자가 'ESG 경영'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



▶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(왼쪽 여섯 번째), SK경영경제연구소 염용섭 소장(오른쪽 여섯 번째)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청책 간담회를 마치고 미래 선도산업 성장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.